

폴란드,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도입 감축키로

- 폴란드의 Marek Pol 부총리와 러시아의 Victor Khristenko 부총리는 지난 1월 23일, 폴란드가 러시아로부터 장기적으로 공급받는 가스의 물량을 약 35% 감축하는 협정에 서명하였음.
- o 동 협정은 현재 정식 발효를 위해 양국 정부와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Gazprom社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음.

□ 가스 수요량 감소 예상이 주된 원인

- 폴란드 정부는 지난 1996년, Gazprom社와 2020년까지 2,500억 m³의 가스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2002년 장기적 가스 수요 예측 결과 당초보다 20~30% 정도 줄어들에 따라 이번에 공급 물량을 축소하게 된 것임.
- 이번 협정에 의하면, 폴란드는 2022년까지 종전보다 900억 m³ 감소된 1,600억 m³의 가스를 Gazprom社로부터 공급받게 되며, 이로 인한 도입비용 절감액은 약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됨.
- o 현재 폴란드의 가스 수요량은 연간 약 120억 m³으로,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전체의 94%를 차지하며, 폴란드 국내 생산분은 3억 7,000만 m³로 전체의 3.1%에 불과함.
- 한편, 폴란드는 지난 2001년 노르웨이 Statoil社로부터 2008~24년 중 740억 m³의 가스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, 이 역시 공급물량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.

□ 러시아-폴란드-서유럽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관련 폴란드측
재원 충당안 등 합의

- 양국 정부는 이외에도 Yamal-Europe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폴란드측 재원 충당안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함.
- o 동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북서 시베리아 Yamal 가스전 지대와 서유럽 국가들을 벨로루시와 폴란드 영토를 거쳐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임.
- 양국 정부는 또한 동 파이프라인으로 수송되는 가스를 응축처리하기 위한 3개의 응축처리시설(compressor station) 건설에도 합의하였음. 이 시설이 가동되면 현재 200억 m³ 수준으로 예상되는 동 파이프라인의 연간 수송 용적이 330억 m³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.
- o 동 파이프라인의 폴란드측 공사는 2005~06년 중 제 1단계가 완공될 계획임.

전문연구원 오경일(☎3779-6646)
E-mail : OKI1122@koreaexim.go.kr